

交換關係의 세 類型：支配，契約，對話

朴 淳 成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대한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근대시민사회는 보편적 생산-교환자로 규정된 사회구성원들간의 자연적 질서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의 근저에는 교환관계를 오직 이익추구를 위한 합리적 경제행위로 파악하는 사고가 깔려있다. 본 논문은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의 편협성을 스미스의 사회사상에서 나타나는 交換關係의 多樣한 意味를 발견해 냈으로써 일차적으로 비판하려고 한다. 스미스가 전 저작을 통해 즐겨 사용하는 설득과 교환의 비유를 분석하여 보면, 교환관계는 支配-服從關係, 契約關係, 自發的 參與關係로 유형화된다. 이에 따라, 상업사회 역시 ① 야망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지배질서, ② 이기적 개인들간의 계약에 기초한 질서, ③ 친목을 위한 대화 혹은 즐거움을 위한 모임 등으로 파악된다. 스미스는 자신의 전 저작을 통하여 교환 관계의 다면성과 함께 상업사회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근대 사회사상가로서 스미스가 지닌 사상사적 풍부성이다.

1. 自由放任主義의 스미스 解釋에 대한 問題提起

스미스의 사회사상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은 『국부론』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학 체계를 두 개의 논리구조로 이해한다.⁽¹⁾ 첫째, 인간의 본성적 교환경향에 기초한 분업의 발생 및 분업의 전제조건으로서 자본의 축적 → 분업을 통한 노동생산력 증대 및 축적된 자본의 활용에 따른 생산적 노동의 증대 → 국부증진의 자연적 질서. 둘째, 경제인으로 규정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합리적 경제행위에 기초한 자연적 경제질서 + 자유방임주의적 정부의 기능. 즉,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인간의 교환성향, 분업의 경제적 효율성 및 개인행위의 합리성 등에 의해 보장되는 조화롭고 발전적인,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질서에 대한 믿음과 경제질서를 보조하는 최소정부의 이상적 기능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이 해석에 따르면, 『국부론』은 사회체제로서의 근대시민사회를 상업사회 내지는 자연적 경제질서로 환원하고 있으며, 스미스에 의해 체계화된 정치경제학 이론은 개별 교환자로 이루어진 商業社會의 安定性과 效率性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것을 내용적 핵심으로 한다.

(1) 스미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논리적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는 박순성(1993, 1994) 참조.

스미스에 대한 자유방임주의적 이해의 한계는 『국부론』을 좀더 염밀히 읽을 때 즉시 드러난다. 먼저,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은 스미스의 정치경제학 체계가 지닌 중요한 특징인 이중적 논리구조 내지는 방법론적 이원성을 간과하고 있다. 『국부론』은 '경제체제로 규정·파악된 사회의 運動原理'와 '개인들의 행위로 구성된 社會의 秩序'를 동시에 다루면서, 이에 대한 이론적·방법론적 구분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실, 『국부론』에는 '생산체계로 이해된 사회(경제)의 기본운용에 관한 총체주의적 이론'과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의거한 교환, 분업 및 사회질서에 관한 이론'이 뒤섞여 있다. 한편으로, 한 사회의 經濟成長을 분업의 확대⁽²⁾와 노동력 및 자본의 생산적 이용에 의해 설명할 때, 스미스는 사회를 경제현상의 주체로서 즉 자신의 노동력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산적 유기체로 이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들의 자연적 교환경향으로부터 분업의 발생을 도출하고 교환으로부터 사회적 생산물의 分配原理를 설명할 때, 스미스는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개별 경제인을 설정하고 경제질서의 형성원리를 개별 경제행위의 합리성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이론구성에 있어서 총체주의적 방법과 개인주의적 방법간의 혼란에 덧붙여 또 하나의 혼란이 존재함으로써, 『국부론』의 해석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스미스는 분업의 기원을 인간의 교환본성에 의해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조화로운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기본적으로 생산자인 동시에 교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업사회는 보편적 생산-교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로서 상업사회의 질서는 교환과 분업의 개인적 나아가 사회적 이익에 의하여 조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부론』 전반에 걸쳐 스미스는 상업사회에 대한 다른 하나의 이론적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국부론』은 기본적으로 자본가·지주·노동자라는 세 계급을 상업사회의 기본 계급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의 소득(이윤·지대·임금)에 기초하여 상업사회의 분배원리 및 성장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즉, 이 세 계급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상업사회의 주요 사회모순, 따라서 상업사회의 운동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인인 것이다.⁽³⁾ 결국, 普遍的 生產-交換者로 구성된 조화로운 상업사회와 階級的 社會構成員으로 구성된 갈등적 상업사회라는 상업사회에 대한 두 가지 이해방식은 『국부론』에 대한 서로

(2) 국부증진의 자연적 질서라는 개념 하에 분업은 단순히 기술적 분업으로 이해되지 않고, 사회의 경제적 활동이 다양한 산업으로 분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3) 한편, 『국부론』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시의 발흥에 대한 역사적 서술(3편 3장)과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4편 1~8장)에서는 국왕(군주), 봉건제후, 독점상인, 도시주민 등이 주요한 정치·경제적 행위자 혹은 계급적 사회구성원으로 등장한다.

<表 1> 商業社會에 대한 理論的 模型

	보편적 생산-교환자로서 사회구성원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된 계급으로서 사회구성원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의 질서	교환자들간의 자연적 질서	사회계급으로서의 개인으로 구성된 정치·경제질서
경제체제로 규정된 사회의 질서	생산-교환자로 구성된 경제체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극단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부론』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혼란을 방법론적 개인주의 대 방법론적 총체주의 그리고 보편적 생산-교환자로서의 개인 대 계급으로서의 사회구성원이라는 두 쌍의 대립적 이론구성원리에 근거하여 파악할 때, 『국부론』에서 발견되는 근대시민사회로서의 상업사회에 대한 스미스의 이론적 모형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위의 <表 1>은 스미스의 사회사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다양한 해석 중에서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이 지배적일 수 있었던 이유를 암시해 준다. 적극적 이유로서,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의 질서라는 개념과 보편적 생산-교환자로서의 사회구성원이라는 개념간의 이론적 친화성을 들 수 있다. 두 개념간의 이론적 친화성은 방법론적 일관성 및 사회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동질성을 형성하면서, ‘교환자들간의 自然的 秩序로서의 商業社會’라는 모형을 제시하는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에 논리적 정합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연적 질서로서의 상업사회’라는 해석이 지배적일 수 있었던 소극적 이유로서 다른 해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들 수 있다. 위의 表에서 나타나는 ‘생산-교환자로 구성된 경제체제’ 와 ‘사회계급으로서의 개인으로 구성된 정치·경제질서’라는 이론적 모형은 구성개념들간의 긴장(보편적 생산-교환자와 경제체제간의 긴장, 그리고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된 계급과 분석적 출발점으로서의 개인간의 긴장)에 의해 불안정하다.⁽⁴⁾ 또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라는 이론적 모형은 근대시민社会의 개인주의적 성격에 대한 해석에서 한

(4) ‘생산-교환자로 구성된 경제체제로서의 상업사회’라는 모형은 하이에크의 ‘自生的 秩序로서의 상업사회’라는 개념에 의해 전형화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개인주의는 (하이에크 자신이 주장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집단(즉, 사회체제) 차원에서의 선별이라는 두 기본관념 사이의 이론적 갈등으로 인해 내적 모순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균(1994) 참조]. 한편, ‘사회계급으로서의 개인으로 구성된 정치·경제질서로서의 상업사회’라는 모형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分析的 資本주의자들의 정치경제학 이론은 이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의 분석틀로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계를 보이고 있다.⁽⁵⁾

물론, 구성개념들간의 긴장으로 인한 이론의 불안정성이나 근대시민사회의 한 특징에 대한 해석상의 불완전성 등과 같은 결점들이 비자유방임주의적 해석들을 폐기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위의 세 모형들은 근대시민사회의 内的 不安定性(혹은 갈등)과 구조화된 원리를 파악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형들의 한계와 자유방임주의적 모형의 지배적 위치로 인하여, 스미스의『국부론』에 대한 대안적 해석뿐만 아니라 근대시민사회에 대한 대안적 사회·경제이론을 제시하려는 모든 시도는 두 가지 이론적 과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안적 모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며, 또한 근대시민사회의 불안정성과 구조성을 近代的 個人的 自律性 내지 는合理性과 결합하여 해석해 낼 수 있는 이론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비판과 대안제시라는 두 가지 과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려고 한다.

본 글의 목적은 자연적 질서로서의 상업사회라는 이론적 모형의 근거에 자리잡고 있는 '보편적 교환자로서의 사회구성원'과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질서'라는 개념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하더라도 스미스의 사회사상에서는 교환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발견된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특히, 스미스의 사회사상이 가진 풍부성을 자유방임주의적 한계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본 글은『국부론』과 함께 스미스의 주요한 사회사상이 전개되고 있는『도덕감정론』 및 기타 저작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일종의 내재적·포괄적 비판의 과정을 거친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화로운 질서라는 관념을 내세우는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의 한계는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2. 說得과 交換：個人의 間主觀的 本性⁽⁶⁾

"언어의 최초 형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스미스는 언어와 필요충족의 연관성을

(5) 맥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전통 중 기계론적 사적유물론에 따른 자본주의적 상업사회 해석을 이 모형의 한 가지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사회와는 무관하지만,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철인지배에 기초한 계급사회도 계급과 경제체제를 연관시킨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하의 내용은 박순성(1992) 중 "3.3.1 교환본성의 이론적 의미"에서 불완전하게 분석되었던 교환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사상을 Park(1992) 중 "III.B.1 L' individu social, l' homme-échangiste"에 기초하여 분석·발전시킨 것이다.

지적하고 있다.

말하기를 결코 배우지 않았으며 인간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라난 두 원시인은 어떤 대상물을 지시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소리를 냄으로써, 자신들의 상호필요를 서로 알리려고 노력하는 데 이용될 언어를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다[LRBL(p. 203)].⁽⁷⁾

스미스에 의하면, 언어는 필요의 형태가 무엇이든간에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타인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는 ‘소통의 자연적 도구’이다. 여기에서 ‘自然的’과 ‘道具’라는 용어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라는 명제를 상기시킨다.

‘必要’라는 관념과 ‘道具的 言語’라는 관념이 결합되어 있는 위의 인용문은 ‘慾求’와 ‘말하는 能力’ 간의 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주장을 끌어오게 한다.

신뢰받으려는 욕구, 설득하려는 그리고 지도·지휘하려는 욕구는 우리의 모든 자연적 욕구의 가장 강한 것 중의 하나로 보인다. 아마도 이는 말하는 능력, 즉 인간본성의 특징적 능력이 기초해 있는 본능이다[TMS(p. 336)].

여기에서 스미스는 필요(수동적이고 강제된)와 욕구(능동적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욕구를 본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와 욕구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능력이라는 개념은, 특히 인간본성의 특징적 능력이라는 개념은 자연적 도구라는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점으로부터, 언어(혹은 언어능력)와 필요(혹은 욕구)간의 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사고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잠시 ‘신뢰받으려는 욕구, 설득하려는 그리고 지도·지휘하려는 욕구’라는 관념을 제쳐두고, 스미스가 교환과 언어능력의 관계에 대해 『국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살펴보자.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인간본성에 있는 원초적 원리를 중의 하나인지; 또는 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이 성과 언어의 능력들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결과인지는 우리의 현재 연구주제는 아니다(WN(p. 25); 『국부론』(김수행 역, p. 21). 부분적으로 수정].

스미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자제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교환의 자연적 성향은 이성과 언어의 능력들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결과다”라는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

(7) 근대적 사회사상의 특징은 근대사회의 형성·작동원리를 이론화하기 위해 ‘가상적 역사과정’으로서 자연상태를 가정하는 것이다. 스미스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이론에서 ‘가상적 역사과정’과 ‘가상적 비역사과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Rawls(1993, p. 264 주 7; pp. 285-288) 참조. 한편, 스미스 저작으로부터의 인용문의 출처는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국부론』: WN; 『도덕감정론』: TMS; 『수사학·문학강의』: LRBL; 『법률학강의』: LJ.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관념은 이미 그의 대학강의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의 대학강의록에서 두 구절을 인용해 보자.

교환성향이 기초해 있는 인간심성의 원리를 탐구해 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설득하려고 한다는 자연적 경향임에 분명하다[LJ(p. 352)].

(분업의 원인인 교환성향)의 실질적 기초는 인간본성에서 매우 지배적인 설득하려는 원리이다[LJ(p. 493)].

‘說得’이라는 행위를 이성(사유하는 능력)과 언어(말하는 능력)라는 인간본성의 두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 행동으로 파악한다면, 이 행동은 인간의 필요(자연적·지배적 경향으로서의 설득하려는 원리)와 인간능력(이성과 언어의 능력)간에 존재하는 자연적(즉, 필연적) 관계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⁸⁾ 위의 인용문에서 특히 의미있는 명제는 “교환의 자연적 성향이 설득하려는 자연적 경향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논거를 발전시킨다.

매우 평이하고 단순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일 실링을 제공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에 일치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국 혹은 좀더 먼 달에 관하여 당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상반되는(contradicts) 것을 내세운다면, 당신은 즉시 그가 그의 견해를 변경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연설을 행하고 있다. —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과 다를 때면 언제나 불편해 하며, 그가 당신의 마음과 같아지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혹, 만일 당신이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일생을 통해 이렇게 되도록 자라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데 또는 달리 말하면 사람들을 다루는 데 일종의 기교와 재주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상적 일에서 행하는 것이다. — …… 이것이 교환이며, 바로 이 교환을 통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기이익에 자신들을 적응시키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짐승들은 이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말한 대로, 개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동일한 목표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노동을 때때로 합치지만, 결코 이를 계약에 의해 행하지는 않는다.

(8) 필요(혹은 자연적 욕구)와 능력간의 필연적 관계는 인간존재의 근본원리다. 이 명제는 형이상학적 명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필요가 있으므로 능력이 주어졌으며, 능력이 있으므로 욕구하게 된다.

…… 그들은 애교나 재롱을 통해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는 것 이외에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들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이익이라는 좀더 강한 수단에 의존한다[LJ(pp. 352-353)].

이처럼 ‘교환’과 ‘설득’이라는 비유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바로 이 비유에 근거하는 스미스의 논증은 약간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⁹⁾ 스미스의 비유는 ‘화폐 또는 논거의 제공’ 및 ‘자기이익으로서 목적달성 또는 견해일치’라는 두 구성요소에 의해 작동하고 있지만, “중국 혹은 좀더 먼 달과 관련한 논의에서 個人的 利益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없을 수 없다.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스미스의 사고를 좀더 천착해 보도록 하자.

먼저 인용문에서 타인의 견해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상반성’(혹은 모순적 갈등, contradiction)에 대하여 살펴보자. 스미스에 의하면, 견해에서의 상반성은 일종의 불편함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과 다를 때면 언제나 불편해 한다.”⁽¹⁰⁾ 다른 한편,

대화(conversation)와 모임(society)의 주된 즐거움은 …… 감정과 견해의 일정한 조응으로부터, (많은 악기들처럼 서로 일치하고 박자를 지키는) 마음들의 일정한 조화로부터 일어난다[TMS(p. 337)].

달리 말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다. 이 즐거움은 스미스가 이미 『도덕감정론』에서 말한 ‘상호동감의 즐거움’(『도덕감정론』 1부 1편 2장)이며, (사회적) 개인들의 間主觀的 本性(intersubjective nature)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해석에 의거한다면, 개인이익의 원칙적 대상은 다름 아니라 즐거움이다. 여기에서 허쉬만이 근대사상의 편협성과 환원론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熱情(감정,

(9) 사실, 논증 또는 설득의 수단으로서 비유 혹은 은유는 분석적 논법이나 분석적 논리가 한계에 부딪쳤을 때 사용된다. 이런 점에서 논증술이나 수사술의 한 형태로서 비유·은유는 풍요성과 폭력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사란 정말 기예 혹은 기술이지만,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다룰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작동하려는 수단이다”[Cropsey(1957, p. 26)]. 스미스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일종의 기교와 재주”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A.S. Skinner(1972)는 스미스의 인지심리학에서 ‘心理的 不便’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엄밀한 의미에서 효용의 관점에서의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미학적 관점에서의 불편함이다.

(11)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도덕판단론의 기초가 되는 동감의 원리를 즐거움의 원리와 간주 관성의 원리의 결합에 의해 설명한다.

〈表 2〉 人間本性의 構造

인간본성	
본능	능력
필요/욕구 혹은 열정/이익	언어/이성
교환/설득/신뢰/지도·지휘	
행위로서의 교환/대화/모임	
인간의 사회적 성격(간주관성)	

passions)의 利益으로의 還元'이라는 명제가 떠오를 수 있다[A.O. Hirschman(1977) 참조]. 그러나 스미스에게 있어서 '이익'과 '즐거움'의 일치는 사회적 개인으로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간주관적 본성을 스미스가 적절히 파악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사회 사상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의 하나인 개인의 社會化 혹은 社會的秩序의 성립근거를 스미스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열정'과 '개인적 이익' 간의 일치성으로 해결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스미스의 사회사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환은 인간의 간주관적 본성에 의해 나타나는 설득의 한 형태이며, 교환과 설득이라는 행위의 동기는 개인적 이익의 내용으로서의 즐거움이다. 또한, 간주관적 행위의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한 특징인 이성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이 발현되고 있다⁽¹²⁾(〈表 2〉 참조). 이제 아래에서는 스미스가 제시한 비유를 출발점으로 하여, 교환관계의 성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3. 支配-服從關係로서의 交換

교환을 이익-즐거움이라는 행위동기에 기초하여 파악하는 시도는 하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즐거움의 원리에 의해 '自己愛' 와 '利己的 熱情' 을 동일시할 경우, 즉시 이기적 열정의 과도함 내지는 자기집중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이미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설득하려는 욕구'를 '신뢰받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지휘하려는 욕구' 와

(12) 설득과 교환의 비유에서, 스미스는 화폐와 논거(즉, 언어)를 동일한 기능을 가진 매개물로 파악한다. 화폐와 언어가 가진 유사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뛰르고에 의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최근 화폐의 발생 및 기능과 관련하여 언어학적·기호학적 분석도구를 도입하는 시도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안현호(1996) 참조].

병행시키고 또한 동일시할 때 내재해 있다.

이와 관련된『도덕감정론』의 두 문단이 분석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것과 관련된 일에서 우리의 지도자이며 지휘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정한 정도의 존경과 경의를 갖고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감탄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감탄 받기를 바라기에 이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도·지휘 받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지도자나 지휘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배운다[TMS(p. 336)].

신뢰받으려는 욕구, 설득하려는 그리고 지도·지휘하려는 욕구는 우리의 모든 자연적 욕구의 가장 강한 것들 중의 하나로 보인다. 아마도 이는 말하는 능력, 즉 인간본성의 특징적 능력이 기초해 있는 본능이다. 다른 어떤 동물들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른 어떤 동물에게서도 자기 동료들의 판단과 행위를 지도하거나 지휘하려는 욕구를 발견할 수 없다. 대야망, 즉 실질적 우월성 및 지도와 지휘에 대한 욕구는 모두 인간에게만 특수하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야망의, 실질적 우월성의,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행위를 지도·지휘하려는 것의 으뜸가는 수단이다[TMS(p. 336)].

이 인용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제가 도출된다. ‘신뢰받는다는 것’이 바로 ‘지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의미하고, 설득행위가 ‘實質的 優越性’ 혹은 야망의 실현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이미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가 지적한 것처럼 야망이 이기적 열정 중에서 최고의 욕구라면[TMS(1부 2편 5장 및 3편 2장)], “말하는 능력은 야망, 즉 실질적 우월성의 으뜸가는 도구이다.” 달리 말해, “언어는 사회적 지배의 으뜸가는 수단이다”라는 위험한 관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의 뿌리는 멀리 ‘설득을 위한 논거’와 ‘자기이익’이라는 두 용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설득과 교환간의 비유에 닿아 있다. 사실, 비유는 깊은 합의를 지니고 있다. 비유의 근원에서 볼 때, 비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와 권위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럽다”[LJ(p. 192)]는 인간본성에 대한 강한 명제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이 명제는 ‘믿으려는 본능적 성향’⁽¹³⁾과 ‘자기애 혹은 자기이익’이라는 인간본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리는 이 점에서 시민사회 혹은 국가의 기원에 대한 두 원리, 즉 權威의 原理(홉스)와 效用의 原理(홉)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성을 이해할 수 있다[LJ(p. 401)].⁽¹⁴⁾ 사

(13) “자연적 성향은 언제나 믿는 것이다. 획득된 지식과 경험만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르치지만, 그것을 충분히 가르치는 것은 매우 드물다”[TMS(p. 336)].

(14) 契約論의 權威主義(죽음을 두려워하는 신민들간의 계약에 의한 권위의 창출과 이에 대한 자발적 복종)라고 규정될 수 있는 흉스에 대한 스미스의 해석은 국가형성의 계약론적 측면을

회질서, 즉 지배에 의한 질서는 개인들이 필요나 이익에 의해 받아들이는,支配에 대한自然的 服從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권위의 원리와 효용의 원리는 인간본성의 공통된 기초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이 두 원리의 결합에 의해 시민사회의 기원을 설명할 때, 시민사회는 이익추구를 위한 상업적 교환과 계급적 지배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상업사회로 환원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비유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환과 설득의 비유에서 나타난 결과, 즉 지배라는 개념과 직접 관련된 함의가 발견된다. 설득(행위)을 지배(혹은 실질적 우월성의 획득)로, 언어를 권력의 수단(혹은 야망의 실현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유는 교환의 본질을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거나 또는 환원하고 만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환을 통해 사람들은 타인들의 자기이익에 자신들을 적응시키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LJ(p. 352))는 구절은 “교환에 의해 개인들은 타인의 자기이익에 호소하고, 즉시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타인노동(의 산물)을 지배할 수 있다”(WN(pp. 26-27, 47))는 뜻으로 읽어진다. 나아가, 부는 교행위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권력으로 되는 것이다 (WN(p. 48)).

비유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위의 결과에 의거해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해 보자. 첫째, 교환이 권력정복의 행위인 한에서, 교환수단 즉 화폐는 최종적으로 권력의 유품가는 수단, 즉 政治的 貨幣로 변신한다.⁽¹⁵⁾ 둘째, 이성은 인간의 道具의 혹은 操作的 能力으로만 규정된다. 교환이 자기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수단인 한에서, 인간본성의 특징적 능력과 그에 기초한 행위는 인간의 열정, 필요, 본능을 위한 자연적 도구이다. 즉, 개인들간의 소통(즉, 교환)은 인간이 자신들의 자연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합리적 도구일 뿐이다. 셋째, 도구적 이성은 다른 사람들을 行爲의 對象으로 다룬다. 여기에서 바로 ‘인간을 다루는 기교와 재주’라는 관념이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명제는 스미스의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타인노동(의 산물)을 지배하는 (측정가능한) 힘’으로 개념규정된 (교환)가치라는 용어의 중요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무시하고, 권위주의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홉스를 계약론적 전통에서 종종 제외하는 일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15) 아리스토텔레스, 록크, 맥스가 화식학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말하는 ‘화폐에 의한 부의 무한 축적’의 실질적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4. 交換-契約

지배 및 권력이라는 개념을 교환관계에서 도출해 내는 설득-교환이라는 비유의 분석은 스미스의 인용문에서 발견되는 ‘계약’이라는 관념에 의해 즉시 반박될 수 있다. 스미스는 사고하고 말하는 능력에 의존하면서 교환을 ‘契約行爲’로 나타내려고 한다[WN(p. 25), LJ(pp. 347, 352)]. 바로 이 계약 속에서 사람들은 교환의 상대방을 발견한다. ‘자기이익’ 혹은 ‘자기애’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득은 더 이상 경멸적 의미에서의 정치권력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합의의 조건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혹은 논의)이다. 스미스 자신도 “인간은 자신과 거래하도록 타인을 설득할 수 밖에 없다”⁽¹⁶⁾고 말하고 있다[LJ(p. 192)].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WN(p. 27) : 『국부론』(p. 22)][⁽¹⁷⁾]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타인의 이익에 호소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교환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도덕감정론』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 간에, 마치 다른 상인들 간에서처럼, 어떠한 상호애나 애정이 없더라도 유용성에 대한 감각에 기초하여 존립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사회 속의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감사에 의해 타인에게 속박되지 않지만, 사회는 동의된 가치평가(an agreed valuation)에 따라 쓸모 있는 일들을 금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TMS(p. 86)].

商人的 精神(효용추구와 가격합의)에 기초한 이 사회는 ‘법적 정의의 사회’, 즉 사회(질서)의 존립이 이기적 인간의 소극적 덕목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이다.⁽¹⁸⁾

(16) 이 구절은 제3절에서 인용된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와 권위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럽다”[LJ(p. 192)]는 구절과 같은 문장 속에 있다. 스미스는 ‘자신과 거래하도록 타인을 설득하는 것’과 ‘자신의 일을 하도록 타인을 명령하는 것’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

(17) 또 다른 인용문: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오직 동료의 자비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자기의 요망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 타인에게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제의가 의미하는 바다”[『국부론』(p. 22)].

(18) “단순한 정의(즉, 법적 정의: 필자)는 대부분의 경우 단지 소극적 덕목이며, 다만 우리의 이웃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할 뿐이다”[TMS(p. 82)]. “덕행은 정의보다 사회의 존립에 더욱 본질적이다”[TMS(p. 86)].

그러나, 스미스에게서 교환-계약의 관념은 결코 공리주의적 사고의 한 형태가 아니다. 전통적 공리주의에 의하면, 개인의 효용(혹은 선)은 감정이입에 의해서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구축한 자기중심적 욕구체계와 유사한 단일한 체계로 조직된 사회의 이익’ (Raphael(1975, p. 96)]에 의해 비교되거나 측정된다. 왜냐하면, 비록 자연적 혹은 일반적 필요라는 관념이나 이기적 계산의 가능성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환은 근본적으로必要의 差別性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개인들 간의 필요의 차별성이 없이는 교환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미스가 말하는 견해의 상반성 혹은 모순적 갈등은 계약에 선행하는 협상, 즉 상호설득을 통해 해결된다. 상반성(즉, 상호갈등)의 해결로서의 교환은 상대방의 서로 다른 필요를 상호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분쟁 없이 공통의 만족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필요를 상호충족시키는 행위이다. 이 점에서 스미스의 교환-계약의 개념은 윌라스적인 기계적 수요-공급모형과 구분된다.

교환을 계약으로 파악하는 관념은 두 가지 이론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는 교환의 필요조건으로서 法的 正義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 경우, 정의의 개념은 ‘同意된 價值評價’라는 개념으로 축소된다. 여기에서 정의는 가치(량)의 정확한 결정(즉, 상품의 공정한 가격체계)과 관련되어 있으며, 합의의 과정에서는 사적 이익(즉, 상품의 비용과 효용)의 합리적 계산만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교환-계약에서의 정의를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은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말한 동감의 원리보다는 합리적 동의의 조건 내지는 공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합리적 이성(보다 엄밀하게는 계산적 오성)일 것이다. 즉, 교환-계약에서의 법적 판단은 감정과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구분된다.⁽¹⁹⁾

둘째, 교환-계약이라는 개념은 교환을 단순히 개인들로부터 출발한 관계로만 파악하지 않고, 교환의 社會的 條件을 드러내 보여준다.⁽²⁰⁾ 이 점을 『국부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호간 호의(쓸모있는 일: 필자)의 대부분을 획득하는 방법이 교섭·교환·구매인 것과 마찬가지로, 분업을 최초로 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교환성향 때문이다. 수렵민족이나 유목민족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고 훌륭하게 활과 화살을 만들며, 그것들과 교환으로 동료들로부터 가축이나 사슴고기를 얻는데, 그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얻는 가축과 사슴고기가 직접 들에서 자기 스스로 잡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로부터 활과 화살의 제조가 그의 주된 임무로 되며 그는 일종의 무기제조자가 되어 버린다.

(19) 이런 점에서 계약-교환이라는 개념은 스미스의 도덕철학(도덕판단, 도덕의무 및 도덕적 덕목의 근원에 대한 분석, 비도덕적 현실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나 정치경제학(자유방임주의적 교환이론 혹은 자본주의적 경제체계 분석)의 기본 사상과 조심스럽게 분리되어야 한다.

(20) 이미 법적 정의라는 개념은 사회적 조건으로서 법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그들의 작은 움막이나 운반하기 쉬운 집의 골격과 덮개를 만드는 데 우수하다. 그는 이 점에서 이웃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데 익숙하게 되는 필자며 그들은 그에게 가축과 사슴고기로 보상하는데, 그는 이 업무에 전적으로 몰두해 일종의 목수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셋째 사람은 대장장이나 놋갓장이가 되고, 넷째 사람은 야만인 의복의 주요 부분인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끝손질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분 모두를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할 수 있다는 확실성 때문에, 각자는 특정의 직업에 몰두해 그 전문직업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고 완벽하게 만든다(WN(pp. 27-28); 『국부론』(p. 23). 강조 필자).

인용문에서, ‘유용하다는 데 익숙하게 되는’, ‘확실성’, ‘잉여분’이라는 세 가지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들은 ‘上호간, 쓸모있는 일’이라는 관념을 매개로 교환을 분업에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經濟體系’라는 관념을 유도해 내고 있다. 개인의 행위를 일정한 형식으로 제도화해 주는 ‘사회질서’, 혹은 ‘사회체계’라는 관념을 염두에 둘 때에만, 우리는 어려움 없이 ‘이웃에게 유용하게 되는 습관’ 혹은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잉여분 모두를 교환할 수 있는 확실성’이라는 관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으로서 교환 및 그것의 자연적 결과로서 분업은 경제체계를 구성하고 존속하게 하는 조건 내지는 목적으로 나타난다. 달리 말해, 계약이라는 사회현상은 개인적 필요들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행위인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체계란 다름아니라 社會制度로서의 市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시장은 교환을 일반화시킴으로써 분업을 정착시키는 사회제도이다. 결국, ‘법적 정의’와 ‘체계’라는 개념을 깔고 있는 ‘계약으로서의 교환’이라는 개념은 상업사회를 시장경제 자체로, 혹은 ‘정의에 기초한 사적 이익의 사회체계’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업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화로운 자연질서라는 개념과 구분되는 새로운 이론적 기초를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제공해 준다. 그러나, 계약으로서의 상업사회는 자신의 작동원리 내부에 이기적 개인의 맹목적·폭력적 야망, 즉 지배·권력의 욕구⁽²¹⁾라는 자기파괴의 원천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葛藤(즉, 계약의 강제화)과 危機(즉, 계약의 파기 혹은 체계의 분열)에 항상 열려 있다. 사실 ‘열정으로서의 사적 이익’(즉, 야망)은 계약의 형성과정에서 합리적 계산에 기초한 정의로운 합의에 의해 억제

(21) 야망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형식은 각 사회체계의 실제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시대에 따라 야망이 추구하는 목표는 달라지는 것이다. 상업사회에서 전형적인 야망의 형태는 자본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되었으나, 언제라도 강화된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22) 다시 말해, 사적 이익간의 계약체계로서의 상업사회는 계약과 지배(혹은 권력) 사이에서, 법적 정의(혹은 평등성)와 열정적 야망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23)

5. 對話 혹은 自發的 參與로서의 交換

상업사회를 계약체계로 파악하는 밑바탕에는 교환자로서의 사회구성원들의 자기이익에 대한 합리적 계산과 공정한 합의라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분석의 출발점에는 스미스가 제시한 설득과 교환이라는 비유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비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성과 언어의 자연적 능력’은 계약체계에서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24) 이에 따라, 스미스의 의도와는 달리, 교환하려는 자연적 경향은 자연적 능력의 필연적 결과로서 제시되지 못하였다. 도구적 이성과 기술적 언어의 사용에 의거한 利己的 契約으로서의 교환이 自然的 性向에 따른 교환을 대체하고 만 것이다.

반면, 지배의 욕구에 의해 이해된 교환의 경우에는, 자연적 능력의 사용은 도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배라는 열정의 억제할 수 없는 성질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달리 말해, 열정과 능력의 자연적 특성들이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환-계약을 위한 설득’과 비교해 볼 때, ‘지배를 위한 설득’에서는 권력에 대한 본능적 욕구와 언어·이성의 자연적 능력이 원인과 결과로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인간본성의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해석되었다.(2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환-계약이라는 관념은 다음과 같은 스미스의 사고를 충분히 해명해 내지 못한다.

(22) 사적 이익은 이처럼 ‘합리성을 추구하는 능동성’과 ‘열정으로서의 수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3) 상업사회의 불안정성 자체가 상업사회의 필연적 분열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안정성에 상업사회의 역동성이 감추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아울러, 여기에 상업사회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어려움이 놓여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업사회의 내적 갈등에 대한 이론은 축적의 모순과 계급갈등에 의해 분석되어야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즉, 상업사회의 역사적 형태의 하나)에 대한 이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교환-계약은 더 이상 사회형성의 기초나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계급으로서의 개인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경제활동으로 축소되고 만다.

(24) 물론 스미스는 계약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언어의) 확실성의 개념과 연결시켜 논하고 있기는 하다(LJ(pp. 88-94)).

(25) 인간의 자연적 경향(설득과 교환)과 자연적 능력(이성과 언어) 간의 관계가 필연적 결과로 규정됨으로써, ‘경향’과 ‘능력’은 동일현상의 양 측면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원래 그것이 놓는 일반적 풍족을 예상해 의도한 인간지혜의 결과는 아니다. 분업은 그와 같은 폭넓은 효용을 예상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 — 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긴 하지만 —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이다. 그 성향이란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이다 (WN(p. 25) : 『국부론』(p. 21)).

반면, 지배(혹은 권력행위)로서의 교환이라는 관념은 스미스의 명제와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관념은 개인적 행위 간의 조정에서 요구되는 안정성, 즉 상업사회의 일관성을 단지 지배라는 강압적 형태로만 이해하고 만다. 이에 따라, 지배와 계약이 아닌 새로운 개념에 의하여 교환관계와 상업사회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덕감정론』에서 ‘신뢰받으려는 욕구, 설득하고 타인을 지도·지휘하려는 욕구’를 통해 지배의 욕구를 언급하는 절에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자신이 믿을 만한 가치가 없고 고의적으로 속일 수 있다고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느낄 때,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럽다. …… 아무도 자신이 말한 한 마디도 믿지 않았다고 불행하게 추측해야 했던 사람은 자신을 인간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으로 느꼈을 것이며, 사회에 돌아가거나 사회 앞에 자신을 내세운다는 바로 그 생각을 두려워 하였을 것이며, 절망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한 이러한 모멸적 견해를 정당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TMS(p. 336)].

따라서, ‘신뢰받는 것’이 ‘인간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이라면, 사람은 언제나 ‘신뢰받을 만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만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 자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단지 소극적 자연으로 환원되고 마는 성질만을 지녀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좀더 근본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2절) 인용하였듯이,

대화(conversation)와 모임(society)의 주된 즐거움은 감정과 견해의 일정한 조응으로부터, 마음들의 일정한 조화로부터 일어난다[TMS(p. 337)].

이제 대화와 모임으로 규정되는 社會生活은 사회적 개인들에게 즐거움의 원천이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인간본성의 사회적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스미스는 상호동감의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달리 말한다면, 인간본성의 사회적 성격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대화와 모임에서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언어의 능력, 즉 대화의 능력과 인간의 사회적 본성은 즐거움의 원리를 매개로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제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교환이 대화⁽²⁶⁾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한에서, 교환성향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한 형태 혹은 부분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한 형태로서 교환성향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언어·이성 능력이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表 2〉 참조).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환은 ‘이익을 위한 계약’의 형태보다는 ‘즐거움을 위한對話’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이로부터 감정의 한 형태로서 즐거움은 이익과 구분되기 시작한다. 셋째, 언어를 포함한 인간능력은 ‘유용하고 발명된 도구 혹은 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 ‘人間生活의 表現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세 가지 함의로부터 하나의 도덕적 관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덕적 개인의 박애적 본성과 이상적 사회[TMS(p. 85)]에 대한 관념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이 관념으로부터 교환관계에서 즐거움을 얻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상업사회의 이상형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²⁷⁾ 그러나, 여기에서는 덜 이상적이면서 좀더 현실적인 사회와 그 사회속에서의 도덕성에 대해 다루어 보자.

우리의 명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도덕감정론』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존해 보도록 하자.

솔직성과 개방성은 신뢰를 얻는다. 우리는 우리를 기꺼이 신뢰하려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신뢰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길을 분명히 바라보고, 즐겁게 우리 자신을 그의 인도와 지시에 맡긴다. 반대로, 유보와 은폐는 망설임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따르기를 두려워 한다. 대화(conversation)와 모임(society)의 주된 즐거움은 그 외에도 감정과 견해의 일정한 조응으로부터, 많은 악기들처럼 서로 일치하고 박자를 지키는 마음들의 일정한 조화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즐거운 조화는 감정과 견해의 자유로운 소통이 없다면 얻어질 수 없다. …… 이러한 자연스러운 열정에서 우리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그의 마음속으로 초대하고,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의 가슴의 문을 열어두

(26) 어원적 분석을 해 본다면, 라틴어에서 ‘conversatio’는 ‘잦은 체류, 머물 혹은 존속, 한 장소에 머무름’ 또는 ‘교제 혹은 소통’, 즉 ‘잦은 방문’을 의미한다.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함’을 의미하는對話 역시 비교적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

(27) 자발적 참여(혹은 모임)라는 개념은 (자발적 혹은 조건적) 협동이라는 개념과 구분되어야 한다. 상호이익의 중대와 이익의 공정한 배분에 기초하고 있는 협동이라는 개념은 계약이라는 개념에 친근성을 가진다. 이 점에 관해서는 Rawls(1971, 1993) 참조.

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일종의 호의를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좋은 기분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느끼는 대로 또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가진다면 남을 유쾌하게 못할 리 없다. 어린이의 재잘거리는 말조차도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숨김없는 진실함이다 (TMS(p. 337)).

이 인용문에서 스미스는 ‘신뢰받을 만하기’에 이르는 최상의 길은 교묘하고 계산된 논증들이 아니라, ‘率直性’과 ‘開放性’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8) 대화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호의’ 혹은 ‘용기’라고 할 수 있는 덕목이다. 이 점에서 솔직성과 개방성은 대화에서의 ‘도덕적 덕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만일 도덕적 개인의 덕목(박애, 신중, 자제, 소극적 정의 등등)과 사회적 개인의 덕목(즉, 사회행위의 윤리적 원칙)을 구분한다면, 스미스가 말하는 솔직성과 개방성은 대화라는 사회행위의 윤리적 원칙이라 할 것이다.(29)

스미스의 인용문은 즐거운 대화와 모임, 즉 즐거운 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함께 사회적 조건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즐거운 조화는 감정과 견해의 자유로운 소통이 없다면 얻어질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일차적으로는 진실성 및 마음의 개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화로운 소통과 대화의 즐거움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객관적 조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언어가 지배의 욕구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지배한다는 것’이 ‘신뢰받는다는 것’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대화(혹은 소통)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30)

결국, 교환이 대화의 한 형태로서 또는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사회생활 그 자체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하나는 교환자들 개개인의 社會的 德目이라고 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自由일 것이다. 이

(28) 솔직성과 개방성은 ‘진술의 내용’과 관련된 가치(즉, 진리성)를 의미하지 않고, ‘표현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의 양식·태도를 의미한다.

(29) 하버마스식으로 표현한다면, 솔직성과 개방성은 ‘소통행위의 윤리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0) 따라서, 이러한 소통에서의 자유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소통의 자유’가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스미스의 입장을 좀더 밝혀 보도록 하자. 스미스는 일부 다처제와 노예제도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전제적 가장이 그들의 부인들에 대해 가지는 경계심은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와 대부분의 다른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자유로운 소통과 모임을 그들의 부인으로부터 빼앗는다”(LJ(p. 153)). 또한, 스미스는 표현의 자유를 인민들의 주된 자유의 하나로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LJ(pp. 124-126, 481)).

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교환에 의해 형성되는 상업사회는 이상적 사회질서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현실 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 교환 행위에서의 자유가 대화로서의 교환에서 요구되는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³¹⁾

6. 交換關係에 대한 스미스思想의意義

스미스의 여러 저작에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 교환관계에 기초한 질서 혹은 상업사회에 대하여 스미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상은 ① 야망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지배질서, ② 이기적 개인들 간의 계약에 기초한 관계, ③ 친목을 위한 대화 혹은 즐거움을 위한 모임 등이다.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이론적 상은 흔히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교환자들간의 자연적 질서로서의 상업사회’라는 단순한 개념상과는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세 유형은 단순화된 유기체적 경제체제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스미스는 자신의 전 저작을 통하여 交換關係의 多面性을 보여주고, 이에 기초하여 상업사회의 다양한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환관계 및 상업사회에 대한 스미스의 다양한 의미파악은 자유방임주의적 스미스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상업사회에 대한 세 유형은 스미스가 도덕철학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相互掠奪的 社會, 公正한 交換社會, 理想的 道德社會라는 인간사회의 세 유형과 유사성을 가진다[TMS(pp. 85-86)].⁽³²⁾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업사회의 성격에 대한 세 가지 이해가 제시하고 있는 사상적·이론적 풍부성이다. 상업사회를 지배질서로 파악함으로써, 스미스는 도덕철학이나 비판사회학에 기초하여 상업사회의 위계적·계급적 성격을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신의 사회사상 내부에 담고 있다. 또한, 교환-계약 및 교환-대화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스미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기초한 근대시민사회에서도 개인들의 倫理的 德目들과 사회의 制度·條件들(사회체계, 법질서 및 근대적 자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에 담겨있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스미스는 자유

(31) 이 점에 대해서는 맑스가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구분하고 있는 “유태인 문제”라는 논문과 형식적 자유의 개념에 기초한 벤담의 자유주의적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자본론』 1권 2편 6장 참조.

(32) 사실, ‘이기적 개인들간의 계약질서’라는 유형은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공정한 교환사회’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도출되었다.

롭고 즐거운 인간사회의 형성가능성에 대하여도 열어두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간사회에 대한 스미스의 批判的이면서도 理想主義의 展望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사회사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다.(33)

끝으로, 거대사회이론의 성격을 지니는 상업사회의 유형학으로부터 분리해 볼 수 있는 교환관계에 대한 유형학은 스미스 이론의 의의를 미시적 차원에서도, 즉 이론의 대상수준을 상업사회 구성부분의 차원으로 낮추었을 때에도 발견하게 한다.(34) 상업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환(행위)들은 형식적·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성격에서 차이를 지닌다. 상업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교환의 형태인 임노동관계는 일반적 상품들간의 거래와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상업사회 속에는 교환참여자들간의 신뢰와 선의 등을 포함한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교환형태(즉, 일종의 교환공동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交換行為들의 多樣性을 아래 〈表 3〉으로 요약해 보았다. 상업사회는 이처럼 자신의 내부에 다양한 성격을 지닌 교환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다양성이 상업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35) 스미스의 사회사상은 이러한 교환관계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해 낼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상업사회를 균질한 사회로 환원시키거나

〈表 3〉 交換의 세 類型: 比較表

	특정적 요소	매개물·필요조건	현실적 예
지배로서의 교환	효용과 복종	권력으로서의 화폐	임노동관계 하청관계
계약으로서의 교환	합리적 협상에 의한 동의	소극적 정의	시장에서의 경쟁적 교환
대화로서의 교환	즐거움 자발적 참여	적극적 정의 도덕 덕목	교환공동체 ¹⁾

註: 1)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교환공동체의 초보적 형태로서 한살림운동, 우리밀살리기운동,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등을 들 수 있다.

(33)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경제사상가로서 R.L. Heilbroner를 들 수 있다.

(34) 교환(관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세 유형은 분석적 개념 혹은 추상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업사회의 유형학과 교환관계의 유형학은 보다 추상수준이 낮은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35) 개별적 교환행위에서의 다양성이 곧 바로 상업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구성의 오류'에 의해서건, 혹은 개별적 교환행위들간의 위계적 질서(예를 들면, 임노동관계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의해서건, 개별 경제이론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만큼 다변성을 지닌 상업사회의 성격은 분명히 개별적 교환행위의 다양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혹은 모든 교환행위를 동질의 단일한 교환행위로 파악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스미스 해석 및 여타 경제·사회이론들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의 교환관계에 대한 사상은 근대사회사상의 이론적 풍부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³⁶⁾

民族統一研究院

100-682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8232.

전화: (02) 250-2573

팩시: (02) 231-4304

參 考 文 獻

김균(1994): “진화론적 제도론,” 『사회비평』 12.

박순성(1992): “아담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의 철학적 기초,” 『경제논집』 31. 3.

_____ (1993): “아담 스미스의 自由主義: 解析의 諸類型과 批判,”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논문집, 제8회 학술대회.

_____ (1994): “스미스 자유주의의 경제, 정치, 도덕: 시장경제질서와 절제된 자유주의,” 『사회비평』 12.

안현효(1996): “현대자본주의 화폐동학에 관한 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Commons, J.R.(1931): “Institutional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21, December, 648-657; Reprinted in Samuels, W.J. (ed.) (1988), *Institutional Economics*, Vol. I., England, Edward Elgar.

Cropsey, J.(1957): *Polity and Economy: An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s of Adam Smith*, The Hague, Martinus Nijhoff.

Heilbroner, R.L. (ed.)(1986): *The Essential Adam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irschman, A.O.(1977):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6) 필자는 스미스에게서 발견되는 교환관계의 세 유형이 Commons(1931)가 제시하였던 거래(transaction)의 세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논문을 끝마친 후 발견하였다. 따라서, 코먼스의 거래관계에 대한 이론적 유형학은 자연스럽게 필자의 다음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Marx, K.(1867): 『자본론』 제1권, 김수행 역(1989), 서울, 비봉출판사.
- Park, S.-S.(1992): *Ethique et Economie Politique: Un essai sur Adam Smith*, Thèse Doctorale.
- Raphael, D.D.(1975): "The Impartial Spectator," in A.S. Skinner and Th. Wilson (eds.)(1975), *Essays on Adam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endon Press.
-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kinner, Andrew S.(1972): "Adam Smith: Philosophy and Science,"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 3.
- Smith, A.(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Liberty Press 복사본 이용); 김수행 역(1992), 『국부론』,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 (1978): *Lectures on Jurisprud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Liberty Press 복사본 이용)
- _____ (197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Liberty Press 복사본 이용).
- _____ (1983):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Liberty Press 복사본 이용).